

# ‘푸른 눈의 태극전사’ 아바쿠모바, 또 메달 쫓았다



한국 바이애슬론 국가대표팀 에카테리나 아바쿠모바가 13일 중국 하이룽장성 하얼빈 아부리 스키 리조트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여자 24km 계주에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로이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여자 24km 계주서 고은정·아베·정주미와 銀 합작 이번 대회 멀티 메달로 마무리 종목 국내 선수 역대 최초 기록



‘푸른 눈의 태극전사’ 에카테리나 아바쿠모바(전남도체육회)가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 멀티 메달까지 사냥에 성공하며 종목의 히스토리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인 아바쿠모바는 13일 중국 하이룽장성 하얼빈 아부리 스키 리조트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바이애슬론 여자 24km 계주에서 고은정(전북도체육회), 아베 마리아, 정주미(이상 포천시청)와 1시간29분27초3의 기록으로 중국(1시간29분6초3)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종목으로 여자 계주의 경우 네 명의 선수가 2km 코스를 세 번씩 돌고, 반환점을 돌 때마다 옆드려 쏘기와 서서 쏘기를 각각 한 차례씩 소화해야 한다. 한국은 첫 번째 주자인 고은정이 경기 초반 3위로 출발했지만 첫 번째 사격에서 카자흐스탄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어 두 번째 사격에서 중국까지 추월하며 선두를 탈환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아바쿠모바는 두 번째 사격까지 독주를 펼치다 레이스 막바지 카자흐스탄에 밀렸지만 선두를 재탈환한 뒤 세 번째 주자인 아베에게 레이스를 넘겼다. 아베는 출발 직후 다시 카자흐스탄에 추월을 허용했으나 첫 번째 사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다시 선두로 치고 나갔다. 한국이 독주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주자인 정주미가 나섰다. 정주미의 첫 번째 사격 과정에서 카자흐스탄과 중국이 치고 나오면서 한국은

3위가 됐다. 하지만 정주미는 마지막 2km 구간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카자흐스탄을 제쳤고, 결국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로써 아바쿠모바는 이번 대회에서 멀티 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지난 1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자 7.5km 스프린트에서는 22분45초4의 기록으로 명파치(22분47초8)와 탕자린(이상 중국·23분01초0)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아바쿠모바는 한국 바이애슬론 국가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에 이어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썼다. 한국 바이애슬론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멀티 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국 바이애슬론 국가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두 개 이상 획득한 것은 1999 강원 동계 아시안게임 당시 김미연·김자연·유재선·최미정(이상 여자 30km 계주 동메달)과 손해관·신병국·전재원·최능철(이상 남자 30km 계주 동메달) 이후 26년 만의 쾌거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스노보드·피겨스케이팅서도 금빛 낭보

김건희 男 하프파이프 금  
김채연 여자 싱글 금메달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 사흘 만에 목표인 금메달 11개 수확의 조기 달성에 성공한 태극전사들이 폐막을 하루 앞둔 13일에도 잇따라 금빛 낭보를 전하며 금메달 14개와 은메달 14개, 동메달 13개(오후 6시 기준)로 종합 순위 2위를 수성했다. 김건희(시흥매화고)와 이지오(양평고)는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결선 없이 메달을 목에 거는 행운을 얻었다. 결선은 이날 중국 하이룽장성 하얼빈 아부리 스키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강풍으로 취소되면서 예선으로 최종 성적을 가렸다. 김건희는 전날 열린 예선 1차 시기에서 78.00점으로 선두에 오른 뒤 2차 시기에 나서지 않았는데 결선 취소로 이 점수가 최종 성적이 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2008년생인 김건희는 한국 스노보드 사상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에 등극했다. 결선 직전 연습 과정에서 손목 부상을 입어 출전이 무산될 뻔했던 이지오는 예선 1차 시기에서 10.75점에 그쳤으나 2차 시기에서 69.75점을 받았고, 키쿠치

하라코야타(일본·75.00점)에 이어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반면 슬로프스타일 금메달리스트인 이재운(수리고)은 강풍으로 2관왕 도전이 무산되는 아쉬움도 겪었다. 예선에서 43.75점으로 6위에 오른 이재운은 결선이 열리지 않으며 최종 6위가 됐다. 김강산(경희대) 역시 예선에서 받은 59.75점이 최종 점수가 되면서 5위를 기록했다. 김채연(수리고)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13일 하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프리 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 79.07점과 예술 점수 68.49점으로 총점 147.56점을 기록했다. 김채연은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총점 71.88점으로 사카모토 카오리(일본·총점 75.03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하지만 합산 점수 219.44점을 기록하며 사카모토(합산 점수 211.90점)를 제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사상 두 번째로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당시 최다빈(여자 싱글) 이후 8년 만의 쾌거다. **한규빈 기자**



한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팀 김채연이 13일 중국 하이룽장성 하얼빈 하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열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국밥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국밥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